광주·전남 아빠 100명 중 3명 '육아휴직'

2021년 육아휴직률 3.5% '전국 평균 상회'…엄마는 밑돌아
아동 수 10년새 11만명 감소에 아동가구 6만 가구 줄어들어

호남통계청 '아동가구 양육 환경 변화상'

광주·전남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빠는 100명 중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쓰는 광주·전남 아빠는 전국 평균보다 많지만, 엄마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부모가 다니는 회사 규모별로 육아휴직 사용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광주·전남지역 아동은 10년 새 11만명 넘게 감소하고, 아이를 키우는 집은 약 6만 가구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내용은 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아동가구 양육 환경 변화상'에 담겼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시근로자 부모의 육아휴직률은 광주 10%, 전남 9%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전국평균(9.6%) 보다 높았으며, 10년 전인 지난 2015년과 비교해보면 전남과 광주 모두 각각 3.8%포인트, 3.3%포인트 증가했다.

부(父)의 육아휴직률은 광주 3.5%, 전남 3.4%로 두 지자체 모두 전국 평균(3.2%)을 상회했다. 아빠들 육아휴직률 역시 2015년과 견줘 광주 3.0%포인트, 전남 2.9%포인트 올랐다.

모(母) 육아휴직률은 광주 18.6%, 전남 16.8%로 나타났는데, 두 곳 모두 전국 평균(18.9%) 보다 낮았다. 2015년과 비교하면 전남 3.5%포인트 광주 2.4%포인트 증가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기업체 규모별로 부모의 육아휴직률이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2021년 대기업과 중견기업 상시근로자 부모의 육아휴직률은 중소기업에 비해 높았는데, 광주의 경우 대기업 21.3%, 중견기업 20.3%, 중소기업 13.4%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7.9%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전남은 대기업 18.3%, 중견기업 19.1%, 중소기업 10.7%였다.

특히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률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정 아빠의 육아휴직률은 광주 2.8%, 전남 2.8%였다. 엄마의 육아휴직률은 광주 5.5%, 전남 5.2%에 불과했다.

부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육아휴직률이 18% 수준임을 감안하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 혹은 아빠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육아휴직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와 전남지역 아동인구는 10년 전과 비교해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2021년 11월 1일 기준, 만 18세 미만 아동은 전남 24만9000명, 광주 23만3000명으로 지난 2015년 전남 30만 6000명, 광주 29만 2000명이던 아이들이 각각 5만 7000명, 5만 9000명 줄어들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구는 전남 14만7000가구, 광주는 14만3000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광주 3만2000가구, 전남 2만9000가구 줄어든 것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파값 오르고 오이 내려

aT 광주전남본부 조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역 소비자들의 농수산물 알뜰 장보기를 돕기 위한 소식지 '얼마요' 2310호를 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얼마요에 따르면, 대파는 지난 주말 비가내려 생육부진과 생산량이 감소해 대파 1kg 기준 2630원으로 2주전 보다 2.7%(70원) 올랐고, 오이는 최근 일조량 증가로 출하량이 증가, 10개 기준 2주전 1만0700원 대비 10.1%(1080원) 내린 9620원으로 조사됐다.

참외는 석가탄신일 연휴가 끝나면서 소비가 감소해 2주전 보다 가격이 하락해 10개 기준 1만6900원으로 조사됐다.

참외는 비타민C를 비롯해 무기질과 식이섬유 등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 이뇨 작용을 촉진해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도록 돕고 간 기능 개선과 장운동을 촉진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합리적인 소비자 구매 편의를 위해 농수산물 가격정보, 제철 농수산물과 알뜰장보기 정보를 KAMIS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LIG넥스원, 국제해양방위산업전 'MADEX 2023' 참가

LIG넥스원(대표이사 김지찬)은 7일부터 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 참가한다고 이날 밝혔다.

참가 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전시공간을 확보한 LIG넥스원은 해군이 추진하는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인 'Navy Sea GHOST'(해양의 수호자)에 호응할 종합 솔루션을 제시한다. 전시관은 무인수상정을 중심으로 한 MUM-T와 함정 탑재장비, 해양유도무기 분야의 3개 존(ZONE)으로 구성했다.

MUM-T 중에서도 해군의 기뢰대항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최신 기술력을 공개한다. 수중자율기뢰탐색체(AUV)는 수중에서 자율 주행으로 기뢰 탐색이 가능한 해군 최초의 무인잠수정으로, 중량 60kg 이하로 승조원이 휴대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수중자율기뢰탐색체(AUV)는 이번 전시회에서 공개되는 무인수상정 'M-Hunter'와 수중통신으로 연동해 임무수행이 가능하며, 이종간 군집운용을 통해 향후 기뢰대항작전(MCM)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해양 미래전의 핵심 전력이 될 해검 시리즈 가운데 '해검-Ⅱ'의 경우 실물을 전시해 관람객의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해검 시리즈는 미래전에 대비한 해상 무인화 플랫폼으로서 임무장비에 따라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또 미래 전장 환경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일컬어지는 초대형급 무인잠수정(XLUUV)의 콘셉트 모델과 함께 LIG넥스원은 유도무기의 명가로서 ▲해궁 ▲해성 ▲청상어 ▲비궁 ▲비룡 등 다양한 해양유도무기도 전시할 예정이다.

김지찬 대표이사는 "갈수록 복잡해질 미래전의 전투 양상과 병력자원 고갈 문제를 동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Navy Sea GHOST' 구축이 필수"라면서 "인공지능과 데이터링크, 체계통합, 자율화 기술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Navy Sea GHOST의 성공을 향한 해군의 노력에 발맞춰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MADEX 2023' LIG넥스원 부스를 방문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국내외 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신용화 LIG넥스원 무인화미래전사업부장이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LIG넥스원 제공〉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에 참여한 회원사 소속 직원이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제공〉

주택건협 광주·전남도회 유공자 주택 개선사업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회장 정기섭·고운주택㈜ 회장)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광주·전남지역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무료 개·보수 등 주거여건 개선사업을 펼친다고 7일 밝혔다.

협회는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주택건설업계의 위상 제고를 위해 1994년부터 30년째 노후주택을 무료로 개·보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까지 총 311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도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지원 대상자를 추천 받아 선정한 애국지사 유족 윤모(91·광주시 동구 지산동)씨를 비롯해 노후주택 22가구에 대한 주거여건 개선사업을 추진, 이달 중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개·보수 지원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보수요망 사항을 토대로 지원업체와 협의를 통해 출입문, 방, 부엌, 마루, 화장실 등 보수공사, 창호, 지붕개량, 보일러교체, 도배 등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참여 회원사가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는 이 사업에 나선 지역 주택건설업체는 고운주택㈜과 ㈜모아종합건설(회장 박치영), 라온주택㈜(회장 김승구) 등을 비롯한 18개사다.

정기섭 회장은 "30년이란 오랜 세월 지역 주택건설업체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일에 묵묵히 동참해준 회원사들에 감사를 드린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지역 국가유공자들이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고객과 상생하는 아이디어' 공모

30일까지…대상 50만원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방은행 브랜드파워 6년 연속 1위를 기념해 '고객과 상생하는 아이디어 공모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규 상품 또는 서비스 ▲100년 은행으로 발전을 위한 디지털 금융 아이디어 ▲광주은행 상품·서비스·제도 관련 불편사항 등으로 오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개인 고객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 횟수에 제한이 없다. 참여 방법은 광주은행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뱅킹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불편 및 개선의견이 담긴 고객 의견을 남기면 된다.

심사를 통해 대상(1명)에게 광주상생카드 50만원, 우수상(2명 이내) 광주상생카드 30만원, 장려상(50명 이내)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2만원을 증정하며 참여상(선착순 100명)으로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 1만원을 증정한다.

수상자는 오는 7월 중 개별 문자 통지할 예정이며,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나선진 광주은행 프로세스혁신부 부장은 "이번 공모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욱 발전하는 광주은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고객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에너지캐시백 신청하세요

한전, 주택용 온라인·방문 접수

한국전력은 7일부터 에너지캐시백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올 7월 전기사용분부터 적용되며 전기 절감량에 따라 최대 100원을 지급한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 적용 기준은 과거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절감률과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 절감률 등이다.

캐시백은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온라인 신청은 6월에 수령하는 전기요금 청구서 등에 포함된 QR코드 스캔,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한전 에너지캐시백' 검색하거나 모바일 앱 '한전:ON'을 통해 가능하다. 또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해 가입경로(URL)를 문자로 받아 볼 수도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비자는 7월 중 가까운 한전 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협광주본부 '보훈가족 사랑나눔 행사'

농협광주본부(본부장 고성신)는 7일 광주지방보훈청을 찾아 '보훈가족 사랑나눔 행사'를 갖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사진〉

행사에는 고성신 본부장, 정홍식 광주지방보훈청장, (사)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 김대현 총장 등 20명이 참여했으며 농협광주본부는 광주에서 생산된 '빛찬들 햇쌀'(10kg, 170포)과 '목우촌 삼계탕'(50개)을 전달했다.

특히 이 날 전달된 쌀 1700kg은 범 농협 임직원들이 매월 1000원 이상의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공헌단체 '(사)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의 참여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의미를 더했다.

고성신 본부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보훈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농협광주본부는 앞으로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보훈가족의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국산차-수입차 개소세 차별 없앤다

내달부터 국산차 18% 하향

다음 달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이 사라진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졌다.

국세청은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준판매비율심의회에서 결정한 조치다. 이번 결정은 향후 3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장 출고가격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56만원(4200만원x18%) 줄어든 3444만원으로 책정된다.

과세표준이 756만원 감소하는 만큼, 출고가의 5%인 개별소비세 38만원, 개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11만원, 부가가치세 5만원까지 총 54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식으로 기아 쏘렌토(이하 출고가 4000만원)는 52만원, 르노 XM3(2300만원)는 30만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2600만원)는 33만원, KG 토레스(3200만원)는 41만원씩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출고가 5%→3.5% 탄력세율)가 재연장된다면 과세표준 하향에 따른 세부담 감소 폭은 줄어들게 된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15.60(+0.19)
↑	코스닥	880.72(+10.44)
↓	금리(국고채 3년)	3.471(-0.031)
↓	환율(USD)	1303.80(-4.30)